

국립광주과학관 '각양각색 컬러나라'展...내달 9일까지 기획전시실

빛·예술·자연과 함께하는 '색의 세계'

50여 종 체험 콘텐츠 컬러터널 등 포토존도

다채로운 색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체험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7월9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각양각색 컬러나라' 특별 체험전이다.

광주과학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빛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 일상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색'을 알아보고 '색'이 전달하는 여러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과 함께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전시 공간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색이 있다 ▲빛과 컬러 ▲예술과 컬러 ▲자연과 컬러 ▲나의 색깔 나의 미래 등 주제로 꾸며졌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컬러를 소재로 한 50여종의 체험 전시물을 선보인다.

'빛과 컬러'에서는 컬러그림자 놀이, 색깔이 만들기, 레저 폰션 터트리기 체험과 함께 '색이 사라진 방', '신나는 색깔대결 놀이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다.

'예술과 컬러'에서는 명화 속 컬러, 예술가들이 사랑한 색, 음악과 색, 색채대비 놀이터, 야광 그림자 놀이 등



컬러그림자 놀이



컬러명함 만들기 체험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신비하고 다양한 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과 컬러'에서는 광물과 생물이 내는 신비한 색과 어둠 속 빛나는 야광 색, 대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신비한 컬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퍼스널컬러 진단으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 관람료는 7천원(20명 이상 단체 5천원)이며,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전시 콘텐츠와 함께 컬러아

트 조형물과 컬러터널, 미디어아트 등 화려한 포토존도 가득하다.

또한 매일 회차별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시 전반적인 만족도가 98%가 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전태호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직무대리는 "지역에서 다시 보기 힘든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과학관을 찾아 다양한 컬러를 체험하고 나만의 색을 찾아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 특별전 관람료는 7천원(20명 이상 단체 5천원)이며,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장희구 박사 (504)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題蔣明輔江舍(제장명보강사)-미수 허목

江水綠如染 天涯又暮春(강수록여염 천애우모춘)
相逢偶一醉 皆是故鄉人(상봉우일취 개시고향인)

강물이 물들인 듯 푸르기만 하고
하늘의 끝에서는 또 봄이 저물고 있네
우연히 취하고 보니 이 모두 고향이네.

서로 이렇게 만나 우연하게 한번 취하고 보니

친지가 강가에 집을 짓고 살았던 모양이다. 강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산다하기 보다는 맑은 바람과 청아한 공기가 좋아서 집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를 더러 한다. 더운 여름에 강가에 나가 발을 담그는 재미는 더없이 좋고, 틈틈이 낚시하는 재미는 낙원을 방불케 했을 것이다. 강물은 마치 물감을 뿌린 듯이 물들인 것처럼 푸르고, 타향의 하늘 끝에는 또 봄이 저물어 온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변안해 본다.



서로 이렇게 만나 우연하게 한번 취하고 보니(題蔣明輔江舍)로 제목을 붙여본 오연철구다.

작가는 미수(眉叟) 허목(許穆:1505-1682)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다. 1650년(효종 1) 이후 정릉참봉·내시교관·조지서별좌·공조좌랑·유공현감 등에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않거나 곧 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67년 공조정랑·사복시주부를 거쳐 1669년 장령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원문을 의역하면 '강물은 마치 물감을 뿌린 듯이 물들인 것처럼 푸르고 / 타향의 하늘 끝에는 또 봄이 저물어 오누나 // 서로 이렇게 만나 우연하게 한번 취하고 보니 / 이 모두가 마치 고향 사람만 같은데'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장명보의 강가 집에 붙여 / 고향 사람 이렇게'로 번역된다. 시인은 고향 연천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삼척부사를 지내던 그 때이거나, 삼남(三南) 지방을 두루 유람하던 중 저물어가는 봄을 보내며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되는 작품의 내용이 들여다보인다. 강물은 파란데 먼 타향에서 봄을 보낸다. 우연히 아는 사이인 장명보를 만나 그의 강가 집에서 함께 술마시며 취한다.

시인은 여름이 되어 보아라. 온 대지가 파란 물감을 뿌린 듯이 파랗고, 하늘을 쳐다보면 또 그렇다. 유유히 흐르는 물도 같다. 온통 파랗다는 시상은 넉넉해 보인다. 강물이 물들인 것처럼 푸르네, 하늘 끝에 또 봄이 저문다고 했다. 세상이 온통 은초록 금초록으로 딱칠을 하는 모습에 시인의 감동적인 시상은 가만히 멈추지 못했던 모습이다.

화자는 친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 만나는 사람 모두가 고향 사람같이 등이라도 칠 양으로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 서로 만나 우연히 한번 취하고 보니, 모두 고향 사람이라 했다. 아마 몇 사람 더 동석했을 것 같다. 이렇게 정겹게 만나 술잔 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음으로 보인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어구

江舍: 강가에 지어 놓은 집. 강가의 별장쯤으로 이해할 일. 江水: 강물. 綠如染: 푸른 물로 물들인 듯하다. 天涯: 하늘가. 又: 또. 暮春: 저무는 봄. // 相: 서로. 逢偶: 우연히 만나다. 一醉: 한번 취하다. 皆: 다. 是: ~이다. 故鄉人: 고향 사람들이다.

누리문화재단 '2023 누리가족한마당' 연다

오는 11일 5·18민주광장 일대

(재)누리문화재단이 여가생활을 즐기며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1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2023 누리가족한마당'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부스, 플라마켓, 청소년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누리문화재단 회원들뿐 아니라 청

소년,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간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단은 '새로운 공동체로 새 희망을 키운다'는 가치를 알리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철 (재)누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한 회원, 청소년, 시민들의 만남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서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시민 공동체

의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창립된 (재)누리문화재단은 지난 27년간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및 NGO 단체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소외계층 200여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광산구 온누리땀방울체험농장 '친환경 텃밭농사 체험', '농작물 수확 및 나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가
무색소
무향료